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의 문제

(빌 01:27-30)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그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지배되며 결정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하여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면적인 생활에 관한 것이요 다음은 내면적인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와 내부 양쪽에서 싸워야 할 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들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많은 싸움들을 싸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싸움과 전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싸움과 전투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타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전투와 싸움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종류의 대적하는 자들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견디어 내어야만 합니까? 교회와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진리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바울은 빌4: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뻐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